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25차 세션, 영리한 관리인과 이혼 에 대한 예수 , 루가복음 16:1-18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5, 예수의 교활한 관리인과 이혼, 누가복음 16:1-18입니다 .

누가복음에 대한 Biblica e-learnin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혹은 여러분 중 일부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비유를 살펴보았고, 그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저는 그 비유에서 막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그가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이 아들은 발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하세요. 우리는 바로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사용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축하할 만한 일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역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발견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상상하고 알아볼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자들과 집으로 돌아온 자들을 축하하러

오는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6장에서 예수께서는 주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전 것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초점은 제자들에게 맞춰집니다 . 그리고 여기서 그는 오늘날 학계에서 매우 논란이 될 만한 우화를 말하고, 가능한 한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6장 1절. 여러분이 아는 참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관리인이 있는 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소가 그에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경영에 대한 계산을 제출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경영자가 아니며, 더 이상 경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주인이 나에게서 경영을 빼앗아 가니, 나는 땅을 파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고, 구걸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에서 물러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주인의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첫 번째 사람에게,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기름 백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계산서를 받고 재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빚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밀 백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영수증을 가지고 80이라고 쓰라고 말했습니다. 8절. 그리고 특히 8절을 주목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주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어인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부정직한 관리인의 지혜로움을 칭찬했습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자기 세대를 대하는데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방법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실패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매우, 매우 흥미롭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우화이다. 사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라.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방금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발견됩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환대를 받으며, 예수 자신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환대를 암시합니다. 이제 오늘, 다음 네 개 정도의 강의에서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언급할 때마다 토론이 어떤 리더십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 속의 인물은 영리한 관리자 또는 청지기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청지기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오코노미아 (okonomia) 라는 단어로, 실제로는 가정 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이거나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편안한 거주지나 거처라고 생각되는 다른 장소로 갈 때 가정과 가정 행정을 맡도록 데려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관리자가 노예라면 그 모든 빚을 지고, 노예는 다른 노예들의 일을 감독하고, 그 사람은, 원한다면, 명예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관리에 따르는 신뢰는 원한다면, 많은 권한과 권력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리자가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주인이 그를 해고하려 할 때, 이 우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보세요.

그는 결정을 내리고, 그런 다음,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8절에서 우리는 주인이 이 영리한 관리인의 행동을 명령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비유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 질문과 여기서 저는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8 절에서 쿠리오스나 주인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 행동을 명령하는 주인이 비유의 주인을 지칭한다면, 속임을 당한 주인은 부정직한 사람의 성격에서 어떤 미덕을 보았거나 부정직한 청지기의 성격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의 주인인 쿠리오스를 예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쿠리오스를 예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는 비유에서 별개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패한 청지기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적용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지만, 부패한 청지기는 칭찬할 만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질문은 작용하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무슨 명령을 받고 있나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프랑스를 얻기 위해 주인을 이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아니면 프랑스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취하는 청지기의 개인적 관대함에 대한 칭찬인가요? 이 비유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은 8절의 부정직이라는 언어를 같은 종의 이전 관행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고, 비유에서 이전 행동의 변화와 현재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8절에서 주인이 주님이라고 불리는 반면, 청지기는 여전히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원하신다면 불의하다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지기가 주인이 오기 전에도 비유에서 채무자들과 모호한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주인이 그때 말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 중 일부를 되뇌는 것일 뿐인지 여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비유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이 비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 e러닝 강의 시리즈를 위해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이해하려는 욕망이나 탐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학문에 대한 집착을 키워왔습니다. 즉, 무언가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학술적이라고 말하고, 무언가가

매우 모호하거나 매우 반정통적이라면 그것은 학술적이고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 시리즈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계속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그런 것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경제 세계에서 제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추구하는 전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누군가가 당신이 싸울 새로운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심하고 싶을 뿐이고, 이 특정 우화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이 우화에 던지는 질문 중 일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종종 여기서 중심적인 문제를 놓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 일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청중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죽는 이유를 묻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제자들로의 전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의 리더십 역할이 무엇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동안, 그의 사역의 절정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루칸의 음모가 예수님이 점차적으로 그들을 종말론적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리더십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의식해야 하고, 모든 것이 여기와 지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 충실한 행보를 걸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의 청지기는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해외로 낭비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언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그 대화에서 라스베이거스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특정 우화에서 관찰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 특정 청지기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해고당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인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했고, 당신은 너무

부정직했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고, 8절의 시작 부분에서 주인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지기가 부패로 해고당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들었으니, 이제 한 번 더 부패를 저지르겠습니다. 왕국의 지도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부패로 들킨 사람들이 어딘가에 쿠션에 부드럽게 안착하기 위해 탈출 전략에 더욱 모호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이제, 어딘가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들은 수난 주간과 그가 죽고 부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사명을 받은 후에 그분으로부터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의 두 번째 권은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성격에 대해 매우, 매우 걱정해야 할 무언가를 보여주시지만, 이 비유에서 청지기에 대한 무언가가 명령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청지기가 매우 영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필하기 위해 문화적 감성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환대가 큰 일인 문화이고, 관대함이 보답되는 상호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 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빚진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예요. 그 우화에서 그는 그들이 그를 집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지 알아차리셨나요? 그는 식사에 필요한 기름과 밀을 언급합니다.

그럼 얼마나 빚이 있나요? 그냥 절반으로 줄여서 수혜자가 마음을 열어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도 관대한 것으로 간주될 뿐,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정치에서는 완전한 부패입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들켰고, 당신을 해고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버림받은 자의 위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책임과 그들이 지도자 역할과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청지기에 대해 볼 때, 이 특정 청지기의 정체성과 행동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수께서 왕국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교훈으로 부정직한 사람의 선견지명을 강조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정 사람에 대한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그가 부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선견지명은 동의하지만,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를 위해 미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학자들이 그 주장을 그 정도로 발전시켰고, 여러분은 그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의 행동에 대한 견해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것은 강조점이 청지기에게 있는 것이며, 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일하고 주인에게 빚진 것에 대한 위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해고되는 집사에게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빚을 전액 갚을 수 있다면 집사는 그들이 빚진 것의 절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빚을 징수할 수 없고 이 위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사는 떠나기 전에 관대함을 행사하여 빚진 것의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 그들이 주인에게 절반을 갚을 때 그 과정에서 프랑스를 차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학자들이 그런 관점을 내세웠듯이, 여기서는 나쁜 행동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돈 통화를 예로 들어보자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고, 세 사람이 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1만 원을 빚졌습니다. 하지만 제 주인과의 계약은 제 봉사의

일부로서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100만 원을 돌려주고, 제가 그 1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5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50만 원이 주인에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1만 원이나 10만 원을 빚진 사람이 그것을 가져오면, 저는 50만 원을 주인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00에 대해서는, 제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5를 줄게요. 그래서 이 우화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프랑스를 차지하기 위해 관대하게 제 위임을 내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화를 그렇게 읽으면 모든 게 정말 좋아 보인다. 그러면 아주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된다. 내일 내가 해고당하면, 나는 수금원이 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현명한 수금원이 될 거야.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읽지 않는 사람들과의 씨름은 교활함의 언어와 부정직하고 불의한 adekia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때, 예수님은 비유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교활함과 미래에 자신을 위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는 것이 작은 부분이라면, 네 가지 면에 대해 말하지만 큰 부정직함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첫 번째 견해는 잊어버리세요. 마지막 견해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는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점은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아마도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 충실하게 섬기라고 도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충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실함에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비유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견해가 이미 정해진 문제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호의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비유를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충실함과 보상을 어떻게 강조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묻는다면, 저는 다섯 가지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충실한 청지기는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에 맡겨진 소유물을 잘 돌보고 충실한 청지기가 되면 그 충실함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을 치르고 부정직함을 관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에 대해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충실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강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이 비유에서의 선견지명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신중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두 번째 관점에 기울어진다면, 이 특정한, 실례합니다, 비유에서 그가 실제로 자신의 사명을 자비로 사용했다면, 그의 영리함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사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에서 그의 영리함을 볼 수 있는 곳을 주목하세요. 그는 "나는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관대함과 호혜성의 문화적 감성에 호소할 수 있고, 내가 쫓겨났을 때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논의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현재를 넘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행위 감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견지명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문제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셉

피츠마이어가 그의 주석에서 말했듯이, 이 비유는 부의 파괴적인 본질에 대한 경고도 아니고, 관리자의 부정직에 대한 승인도 아니고, 회계의 위조에 대한 승인도 아닙니다.

주인의 승인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물질적 소유물을 가장 잘 사용할지 깨닫는 관리자의 신중함에 달려 있습니다. 피츠마이어가 자신의 위임을 자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기울어졌더라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10절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실하고, 아주 작은 것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부정직합니다.

만일 네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네게 참된 부를 맡기겠느냐? 만일 네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네게 네 소유를 주겠느냐?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에게 헌신하고 다른 주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느니라. 기본적으로 왕국 원리에 관한 문제에서 나는 이 네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첫째,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의 특성은 윤리적 원칙 또는 경건주의적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비유에서 도출된 예수님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충실하면 궁극적으로 충실한 사람에게 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또한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충실하면 비유를 말한 직후에 징벌적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여기서 비유의 원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네 번째를 강조합니다. 좋은 선견지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의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천국, 즉 미래에 가는 길에 있다고 말한다. 이 결합된 스펙트럼, 시간적 스펙트럼이 “나는 미래 예측 없이 지금 여기에서 살고 싶지만, 미래에 천국에 갈 비자가 있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말한다는 것을 깨닫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만의 것으로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심판자가 올 것이라는 예지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며, 궁극적인 심판자는 그들이 충실한지 불충실한지, 정직한지 부정직한지, 보상받을 만한지 처벌받을 만한지에 대해 결정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를 듣고 불만스러워했다면, 왕국 봉사에는 충실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영적 통찰력 측면에서의 신중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옆으로 밀어내셨고, 몇몇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리새인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팀에 들어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배경으로 사라지고,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14절을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16절.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에게만 속한 것이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의 한 점이 폐지되는 것보다 쉽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통죄를 범합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간단한 구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양한 논란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제 교실에 들어오는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이 구절에서 몇 가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강조할 부분과 결혼과 이혼 부분을 다루는 18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청중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청중의 변화는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는 법과 도덕의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원한다면 전파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상치가 아니라고 확신시킵니다. 사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경전에 따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이후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고,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하며, 그 표현은 그들이 폭력적으로 들어가는가? 그들은 강제로 들어가는가? 그것은 이 특정 구절에서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들이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제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제가 하는 일은 당신이 설교하는 것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당신이 불일치하거나 불쾌하게 느낄 만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세요. 당신의 번역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비난으로 만들거나 번역하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조롱이나 비웃음의 감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그 진술을 비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그리스인을 보았을 때, 저는 웃었고,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 그들은 사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단순한 삶을 살고, 비열한 방식으로 살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이 비난,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잘 알려진 다른 종파를 알고 있으며 예루살렘에 더 많이 기반을 두고 있다. 바리새인이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업가이며,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책임을 지는 것을 좋아하고, 성전 시스템을 통제하고, 시스템을 점거하려고 하며, 사헌 드린 의 저명한 인물이며, 엉뚱한 짓을 좋아하고, 로마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어떤 연줄이든 이를 위해 사용할 것이고, 바리새인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누군가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누가 그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시험에서 당신이 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조롱했지만 예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또한 대중 이미지에 대한 그들의 집착에 대해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자기 정당화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가 바리새인들의 적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환대가 중요한 문화권에서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예수는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를 랍비로 기꺼이 초대하고, 그는 그들의 초대를 수락합니다. 그 환대와 호혜의 문화에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적에게 제공하지 않는 중요한 제스처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들이 모두 함정이라고 가정하지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밀어붙일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 중 일부와 함께 그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러 나가셨을 때, 그리고 이 강의 시리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사례 중 일부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보셨고, 아마도 그들이 단순함을 설교하더라도 호사를 선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들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설교하지만, 어느 정도 사치스럽게 산다. 왜냐하면 루크가 매우 자주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루크는 버림받은 자와 가난한 자의 위치를 강조하고 강조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생활방식에 비하면, 그들은 아마도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제 농담과도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나 원주민이고, 콰이 워족이라는 특정 부족 출신입니다. 가나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실제로 우리는 사업적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빚진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콰이워가 당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콰이워는 당신이 그들이 부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콰이 워족은 여러분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들이 매우 가난하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콰이워족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부자로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안다면 그저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콰이워족은 자신이 부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모든 문화권에 외과의가 있다는 걸 봅니다. 제가 일하는 것 중 하나는 인종 관계입니다. 백인과 결혼해서 다음 인종의 아이를 둔 사람으로서, 특히 미국에서는 양쪽에서 인종차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인 친구에게 말할 때마다, 알다시피,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할 겁니다.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종차별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은 인종차별입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흑인이 입으로 "여기 백인은 원치 않아"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 하지만 그건 인종차별이에요"라고 말하곤 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 인종차별이라는 관행이 이 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도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위선자라고 거듭거듭 비난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편안하지 않은 것을 만지셨습니다.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이크를 갖게 되고,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단순한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다음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동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면, 사람들이 왕국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인가?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능동태로 읽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뒤에 없이 그저 왕국 자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영역은 명백히 수동적인 것, 명백히 능동적인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영어 번역을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번역 선택은 그들이 1616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한 비난입니다. 제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고, 우리는 몇 번이나 다루었습니다. 모두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는 루가 복음과 예수님이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율법과 선지자들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시고도 여전히 돌아다니시며,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면 간통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본문을 다루는 방식에서 알아야 할 어떤 것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유대교에서 이혼에 대한 견해가 단 하나가 아니었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혼에 대한 견해가 획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의 샤마이 학파는 힐렐 파 , 즉 가말리엘이 바리새파에서 속했던 랍비 힐렐 학파와는 다른 이혼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샤마이 학파는 간통이나 음행에 대한 예외 조항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구약성서는 이혼을 정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신명기 24장의 느슨한 끝 중 일부를 조여야 한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은 또한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예수가 이야기할 바리새인들 가운데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샤 마이트 학파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 그들은 아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이혼이 허용된다고 말한다. 당신은 그녀와 이혼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서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강의 시리즈를 듣는 설교자 여러분, 친구 여러분,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설교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고 싶어합니다.

잘못된 부르심, 잘못된 서비스. 예수께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루어야 할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흐름에 맡기는 것뿐이라면 리더십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그는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계속 따르는 것이라고 확립함으로써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위선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바리새파에서 이혼에 대한 통찰력에 분열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은 우리가 때때로 신약에서 호소하는 것을 보는 율법으로,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여 그녀와 결혼할 때,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고, 그가 그녀에게서 어떤 음란함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그의 집에서 내쫓을 때, 그녀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후자의 남자가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의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그의 집에서 내쫓을 때, 그녀를 아내로 삼은 후자의 남자가 죽으면, 그녀를 내쫓은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 그녀를 다시 아내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가져오지 말라. 그러므로 신명기의 율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해서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나 쉬운 이유로 이혼 증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이혼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실례합니다만, 다른 남자가 죽거나 다른 남자가 같은 방식으로 그녀와 이혼하면,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이혼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배우자를 놓아주는 매우, 매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는 이혼이 그렇게 쉬워서 안 된다는 삼미파의 견해에 기울어지는 듯했습니다.

결혼은 신성해야 하므로 일부 성경의 해석이 작용하지만, 모든 구약이 이혼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제2성전 유대교의 후대 랍비들이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세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를 훑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더 많이 보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와 같이,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그에게 물었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절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대중 강의를 하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본 구절을 언급하시며, 531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재해석하여,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증을 주라고 하셨습니다(신명기 20장).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성적 부도덕함(poinir) 외에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너희가 아내를 이혼하도록 허락했지만,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성적 부도덕함 외에 아내를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외 조항이 마태복음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 다시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누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이혼하고 결혼할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때리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과 재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세요. 여기서 저는 누가복음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두 커플 사이의 지속적인 유대감으로 여겨지며,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하며 너무 멀리까지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예외 조항에서, 저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태복음은 성적 부도덕을 제외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 과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적 부도덕으로 번역된 단어는 제가 그 구절에서 보여드린 *poinir* 라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그 단어는 불법적인

성관계, 매춘, 간통 또는 여러 종류의 성적 부도덕, 또는 음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사전, 몇몇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어 사전은 같은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특히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는 사람은 음행, 간통, 부정, 불법적인 섹스, 창녀 또는 매춘, 또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성적 행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poinir*라는 단어는 모든 성적 부적절함의 포괄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고 싶지 않지만, 나는 모든 종류의 성적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탈출 전략으로 호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종종 *poinir*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함께 살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흡입 조항이 있는 경우, 흡입 조항이 개입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일이 전혀 진행될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최근에 특히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저에게 학대는 어때요, 알코올 중독은 어때요, 버림은 어때요, 저는 이것들이 합법적인 문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것들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것들은 논의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일부 문제들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방금 바리새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해석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점에 대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혼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거의 추정했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동의할 것이지만, 일부 바리새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공관복음의 평행구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제가 보여드린 예외 조항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진술하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청중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그 연설이 남자들에게만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집에서 대답하는 배경을 발견하며, 그런 다음 연설은 양방향으로 전달됩니다. 여성들도 이혼과 재혼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면 18절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바리새인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지 않거나 거만하게 서지 않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일깨워줍니다.

재혼에 관한 문제에서, 사실, 그는 바리새인들이 말한 많은 것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저는 누가복음의 이 특정 부분이 사람들이 경기에서 일련의 것들을 이해할 때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며,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의 말할 수 있습니다. 영리한 관리인의 우화는 온갖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그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이 부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론을 전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서 바리새인들에게로 옮겨가서 바리새인들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는지 듣지 못합니다. 당신이 제자라면, 영리한 청지기의 비유를 생각하고, 신실함과 신실한 봉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인 보상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리새인들처럼 한 가지를 옹호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입장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항상 위선을 정죄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진실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자세를 취하는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칭찬할 만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이혼과 재혼 문제를 여기서 충분히 다룰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 주제를 꺼내자마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질문에 답하기를 바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격려하는 한 가지는 경전에 대해 계속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 여정을 추구하면서 충실한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질문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충실한 봉사와 충실한 행실에 보상하시는 분이 그의 왕국에서 충실한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저희와 함께 이 학습 여정을 계속하고 나머지 강의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5, 예수와 슬기로운 청지기와 이혼, 누가복음 16:1-18
입니다.